

# 숲 정 이

부활 제 6주일

제 1 독서 : 사도 15, 1-2, 22-29

제 2 독서 : 묵시 21, 10-14, 22-23

복 음 : 요한 14, 23-29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요한 14, 23b)

## 강론

### 15처의 비밀(?)

이 동 신부 / 진안 천주교회

신학생 시절 다른 본당에서 신부님을 도와드리며 지낸 적이 있었다. 특별히 많은 것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들과 같이 지냈던 일들이 떠오른다. 그 중 특히 더 기억에 남는 일은 학생들과 같이 피정중에 했던 십자가의 길이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인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나는 학생들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한 처 한 처를 묵상하고 기도를 바치며 가고 있었다. 13처까지 잘(?) 마쳤고, 14처로 가기 위해 이동하는 순간 나는 당황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알았는데 또 하나가 있지 않나?

나는 그 동안 잘(?) 바쳤던 13처까지의 기도와는 대조적으로 분심 잡념 속에서 14처의 기도를 바치게 되었다. 이 기도가 끝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처 뒤에 또 다른 처가 있다고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짧은 순간이지만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던중 한 순간 변칙 다가오는 것이 있었다. 그렇다. 그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치고 싶은 순간이었다. 바로 그것이구나. 15처의 비밀은 내 자신이 화두를 깨우친 스님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밝게 다가오고 있었다.

15처는 바로 주님의 부활이구나. 나는 그 동안 십자가의 길을 바치면서 14처가 마지막이라고 늘 생각해 왔었는데 사실은 또 다른 한 처가 항상 그 옆에 같이 있었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처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오늘 복음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으로써 당신을 믿는 이들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도 당신이 주시는 평화를 지니고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게 하신다.

“내가 지금 이 일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4, 29)

## 소리

### 가정의 달, 5월에...

미풍에 하늘거리는 신록 속의 5월은 청자빛 하늘만큼 계절의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해맑은 대지 위에서 한껏 기지개를 켤 수 있는 5월은, 그래서 우리들 가정에 밝은 빛으로 다가온다.

5월은 가정의 달.

우리는 항상 내 가족, 내 가정의 소중함을 지나치리만치 강조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 구성의 가장 작은 집단인 가정은 구성원 하나하나가 혈연(血緣)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친근할 수 없고,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직장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사회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우리는 예로부터 대가족제도라는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었다. 집안 어른을 정점으로 한, 대가족제도가 보인 일사분란함은 항상 가정의 평화와 안녕, 그리고 위계질서를 본분으로 해왔다.

그것이 설령 가부장적이고 전근대적인 구습이라 매도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장 아름다웠던 전통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같은 제도과 상황은 핵가족화 현상이 보편화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쇠퇴해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꼭두새벽부터 눈을 비비기가 무섭게 직장으로 학교로 뿔뿔이 헤어지고 나면 남는 것은 집뿐.

요즘의 세대는 가정이라는 어휘를 자꾸만 잊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이웃간의 유대 또한 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메말라가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지내면서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보자. 

### 숲정이 산책



## 남이 바라는 대로 해 주어라

조명미(마리아) / 월명동 천주교회

우리는 누구나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칼날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히브 4, 12)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무디어졌던 마음을 도려내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놓으신다.

조명미(마리아·35세) 씨.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읽고 듣는다. 그러기에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생활 안에서 체험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다.

88년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그녀, 성서를 읽고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던 생활,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던 그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버겁게만 느껴져 갔다. 서로의 의견차이로 빚어지는 작은 부딪침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마침내 건강까지 나빠진 그녀는, 시부모님과 독립을 선언하게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와 소스라치게 놀랬다. 그녀는 하나님께 가려면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맞들여 가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녀를 시험하듯 남편에게 어려움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원래 대학교 조교로서 교수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직업을 바꾸어야만 했다. 경험도 없는 사업을 시작한 그는 열심히 뛰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교수였던 아들이 장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직업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어 할 수 없이, 부모님의 뜻에 따라 다시 학교로 가기 위해 하던 일을 중단했다. 그러나 남편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자 남편은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성당에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트집을 잡았다. 나는 그때 정말 난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남편을 기도로써 동반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인지 남편은



천신만고 끝에 취직이 되었고, 부족하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녀의 고백을 들으면서 도시의 사막, 삭막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만나는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깨달았다. 그러나 조명미 자매님처럼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잔잔한 평화와 충만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녀는 지금 본당에서 레지오, 성모회, 성서공부, 성가대 지휘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가족으로는 시부모님과 남편, 아들 화석, 홍석이와 함께 성가정을 이루고 있다. 요즘 그녀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성모님을 새롭게 목상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옆에서 함께하시고 어머니로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도 성모님처럼 잘 가르쳐, 자녀들이 올바른 일에 몸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성서말씀은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마태 7, 12)라는 성서귀절이다. 이 말씀을 ‘남이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라고 받아들이며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늘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살피고,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다정다감하게 살아가고 있다.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을 매순간 찬미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다는 그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기쁘게 생활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아니겠냐’고 말하며 활짝 웃는 그녀의 모습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

취재 : 편집부

### 자연산 활어 전문점

23호 회 센터  
도다리, 농어, 광어  
(차량대기, 전화주문 신속배달)  
최금석(요셉) 윤은숙(소피아)  
송천동 직판시장 2층  
☎ 254-7129  
호출기 012-682-0046

### 그린버티컬

커튼, 버티컬, 블라인드  
롤스크린, 슬라이딩(칸막이)  
장 상 수(바오로)  
이 양 님(루시아)  
영등동 성당 ↔ 동부시장 사이  
☎ (0653) 52-0018

### 효자한의원

한방각과, 비만, 알리지성 체질,  
요실금 치료  
박 우 순(유스티노)  
유 혜 경(루시아)  
효자성당 ↔ 목화APT 사거리  
☎ (0652) 222-3129, 226-1075

### 동산동 아남제일대리점

T.V·전축·V.T.R  
김 남 태(바오로)  
김 윤 태(돈보스코)  
이리서 동산동 동양호텔 옆  
☎ (0653) 842-2604 ~ 5, 54-9504  
아남서비스 834-2628

잡간

3. 생명의 문화와 여성

오늘 우리에게 삶은 참으로 복잡하고 시끄럽다. 인간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치도 않을 상황들이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그것들이 마치 가치있는 삶을 이루어 내기나 하는 것처럼 극성을 부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향락적인 놀이들의 드센 물결에, 그리고 과소비와 이기적인 풍조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 들고 있다.

이에 덩달아 각종 사회문제도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패륜적인 범죄들은 이 땅의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물질 만능주의로 말미암아 인간성 상실은 물론,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인간 사회의 기본 세포라 할 가정도 예외는 아니다. 인간의 생명과 그 존엄성이 가정에서부터 침해당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가정의 보금자리가 담당해 왔던 중요한 기능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무분별한 불임수술과 낙태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지난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의 결의로 우리 한국 교회는 해마다 5월 마지막 주일을 '생명의 날'로 지내게 되었다. 이는, 가정의 해인 작년 한 해 동안 현대 가정의 위기를 직시하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 기울여 온 교회의 노력들이 단순히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의 문화를 건설해 나가는 지속적인 실천운동이 되어야 하겠다는 교회의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교회가 가정의 올바른 기능을 회복하고,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교회가 사회 안에서 수행해 나가야 할 소명 가운데 으뜸 자리를 차지한다.

교황 성하께서는 인간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오늘날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3월 30일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을 발표하셨다. 이 회칙의 결론 부분에서 교황 성하는 생명의 문화를 창달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도 여성이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강조하셨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가족사목위원회)

오는 28일(일), 생명의 날을 맞이하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는 27일(토) 오전9시부터 코아백화점 광장에서 생명 보호 사진전 및 환경 보전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10주된 태아의 발 배지 달아 주기 캠페인도 벌인다. 신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

교구 소식

청소년 축제

- 일시: 6월4일(일) 오전9시30분
- 장소: 윤호관
- 대상: 교구내 중고생(성소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일반)
- 준비물: 미사도구, 장식
- 주최 및 문의: 성소국, 교육국 ☎ 85-0041

1. 축! 견진: 5월27일(토) 오후4시 효자동 성당
  2. 교구장 사목방문: 5월25일(목) 연지동, 신대인 성당, 5월26일(금) 고창 성당
  3. 새 사제 연수과정: 5월25일(목) 교구청
  4. 사무장(원) 소동: 5월23일~24일
  5.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1일 피정: 5월22일(월) 오전8시30분 동혜원
  6. 혼인강좌: 5월28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각 10,000원
  7. 하나로 1일 피정: 5월28일(일) 오전8시30분 천호 피정의 집
  8. 교도사목후원회 야외미사: 5월22일(월) 오전10시 전동 성당 집결, 장소-지리산 노고단
  9. 전주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전화번호 안내: ☎ 84-5291
  10.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5월26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 ※ 축! 영명: 23일(성 디디에) 지정환 신부님

요심이 (1133) 김병오



**여사무원 구함**

1. 자격: 영세한 지 3년 이상, 고졸 이상
2. 제출서류: 이력서, 세례증명서, 최종학교생활기록부 각 1통
3. 서류마감: 5월 28일까지
4. 연락처: (0652) 241-1140  
호성동 천주교회

**사무장 구함**

1. 자격: 영세한 지 3년 이상(남) 고졸 이상
2.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세례증명서, 교직사본, 본당신부님추천서 각 1통
3. 서류접수 및 문의: 어양동 성당(831-4050~1)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 36개월 할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 A/S 전문점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다가동 파출소 옆  
☎ 84-6085, 223-5823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복종합전시장**  
박영근(공사가)  
장정신(젬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

생수 공급합니다.  
**할티생수**  
<전주,이리 배달가능함>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 86-9993(주) 221-8504(야)  
호출 015-680-6769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 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여성  
· 일시: 5월28일(금) 오후 2시  
· 장소: 삼랑진본원 (0527)52-4241  
· 준비물: 신구약 성서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부활 제6주일
- ◎ 비품구입 특별헌금 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 1. 가정방문 안내: 26일 - 기린봉APT 2,3번
- 2. 유아 세례: 27일 후 3시 \* 사무실에 신청바람
- 3. 혼인강좌: 28일, 전 9시30분, 센타 \* 혼인을 앞두신 분은 혼인 강좌를 수료하시고 신부님과 면담해주시시오.
- 4. 성모의 밤: 30일(화) 저녁미사 후
- 5. 비품마련 특별헌금 신입액: 소계-253만원, 누계-2,418만원  
봉헌액: 길인자, 정선례, 박귀병-각 3만원, 박덕남-16만원, 배선화, 김경미, 홍성호-각 5만원, 동미숙-15만원, 부녀회-100만원, 익명, 이치중-각 20만원, 김용녀-2만원, 전순오-10만원, 소계-207만원, 누계-1710만5천원
- 6. 모임: ①대건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제대회(24일 어머니미사 후)  
③빈첸시오회(25일 전 10시30분)  
④꾸리아(28일)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 7. 금주 청소: 중노 18, 19번  
차주 청소: 중노 20, 21번
- 지난주 봉헌금: 918,890원 □ 교무금: 1,058,000원

**\* 서화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1. 모임 안내: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장소-강당  
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장소-유아방
- 2. 야외 승천미사 안내: 5월28일 10시30분, 장소-치명자산 성당  
\* 제2부는 재미있는 여흥과 장기자랑 및 선물로 일차로 푸짐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도시락 지참하고 모두 참여합니다.
- 3. 예비신자 모임: 6월4일(일) 공식미사 후  
\* 한 가정에 한 분씩 인도합니다.
- 4. 금주 전례: 5월21일(일) 전례-이동재(베네딕도) 독서①최기호(도마) ②손정순(아네스)  
차주 전례: 5월28일(일) 전례-전병구(비오) 독서①김장원(아오스명) ②최은실(로사리아)
- 5. 청소 안내: 금주-상아탑, 차주-평화의 모후
- 6. 전입을 환영합니다. 신우숙(베로니카) 인후동 ☎82-7888 안중섭(로마노) 인후동 ☎83-8181 최원규(요한) 서울 월곡동 ☎88-7247
- 7. 성전외자 성금내신 분: 이기영(알로이시오) 100,000, 유지상(안토니오) 100,000, 신용옥(방지거) 60,000, 정동석(갈레멘스) 50,000, 안경순(마리아)의 4명 150,000원
- 지난주 봉헌금: 1,012,850원 □ 교무금: 1,264,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필

- 1. 주의 승천 대축일 야외미사: 28일(다음주일) 장소-초남리, 준비물-미사준비, 도시락. 성당 출발-오전 9시
- 2. 예비자 환영식: 21일(오늘) 공식미사.
- 3. 병자 봉성체: 26일(금)
- 4. 유아 세례: 27일(토) 오후 6시반
- 5. 부활 영세자 첫 고백: 27일(토) 오후 7시
- 6. 성모의 밤 행사: 31일(수) 저녁 8시-유인물 참조
- 7. 가정 방문: 23일(화) 오후 2시-다가 5번  
24일(수) 오후 2시-중앙 1,2번  
25일(목) 오전 10시-고사 2번,  
오후 2시-완산동반  
26일(금) 오후 2시-태평 1번
- 8. 모임: 빠스카 형제회-오늘 공식미사 후  
M.E 가족모임-26일(금) 오후 7시반  
빈첸시오회-27일(토) 오전 10시  
사무장(원) 교구 소풍-23~24일
- 9. 복자신용협동조합 장학생 선발: 게시판 참조하세요.  
성당 청소: 27일(토) 겸손하신자의 모후Pr. 셋별Pr.  
금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라경섭 부부.  
봉헌-이갑규 가족  
차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안철조 부부
- 주일헌금: 637,200원 □ 교무금: 1,122,500원
- 감사헌금: 30,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형

- ◎ 부활 제6주일
- 1. 금주: ①바리의 성모Cu.(후 2시)  
②청년회(후 8시)
- 2. 심화회: 22일(후 7시)
- 3. 성모회: 23일(전 11시)
- 4. 빼앗다회: 24일(전 11시)
- 5. 성지회: 26일(후 8시)
- 6. 5월중에 가족, 단체사건 촬영(1개는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사진촬영 장소: 성당 앞마당)
- 7. 감사합니다: 감사헌금-70만3천원(익명)
- 8. 차주: ①성마리아 꼬미시울(후 2시)  
②차량축복식(공식미사 후)  
③혼인강좌(전 9시30분, 센타)  
④교무금 납부주일
- 예비자 꼬리 안내: ①화요일(후 8시)-대학생, 청년반  
②수요일(전 10시)-노인반  
③목요일(후 8시)-직장인, 성인반  
④토요일(후 4시)-중·고생반  
⑤일요일(전 9시)-일반인, 남녀
- 주일헌금: 1,951,62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5월은 성모 성월: 성모님의 삶과 덕을 본받읍시다.
- ◎ 다음주일은 본당발전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1. 모임: ①새 영세자 모임, 성가대-오늘 공식미사 후  
②성모회, 자모회-다음주일  
③꾸르실로 울뜨레아-27일(토) 저녁 8시, 성당 회합실
- 2. 축! 혼인: 신랑-정수연, 신부-양정하(마달레나)  
양귀환 씨 4녀 오늘 11시30분
- 3. 고 김완준(베드로) 49세 탈상미사: 오늘 5시, 장소-성당
- 4. 성모의 밤 행사: 27일(토) 저녁 6시  
\* 준비물-목주, 초, 꽃, 성모님께 드리는 글
- 5. 혼인강좌: 28일(일) 오전 9시30분 가톨릭센터
- 6. 성소주일, 청소년 주일 행사: 6월4일, 유희관
- 7. 예수 승천 대축일 야외미사: 28일(다음주일) 10시30분  
장소-의암(수원지)
- 8. 안나회 성지순례: 수원교구 남양성지, 23일(화) 7시30분 출발
- 9. 성당 청소: 금주-천사들의 모후Pr. 차주-천주의 성모Pr.
- 10. 금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김영신 ②주영례  
봉헌-이명수 가정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최원규 ②이석남  
봉헌-김영신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97,050원 □ 교무금: 144,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상근

- ◎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
- 1. 성모의 밤: 25일 저녁 7시30분 전신자와 예비자 신도 모두 참여합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예물 준비
- 2. 예수 승천 대축일 야외미사: 28일 오전 10시30분, 구이 저수지 동산, 준비물-미사준비, 가벼운 복장, 점심식사. 버스편-구이, 하운암, 막은댐, 상학, 운암교, 방면 승차, 구이 두현리(마르개) 마을 앞 하차
- 3. 대축일 미사 안내: 28일 새벽 5시30분, 야외미사 10시30분 저녁 7시30분, 9시와 10시30분 미사는 야외로
- 4. 교도소 후원회원 야외미사: 22일 전 10시30분, 동상 수만리
- 5. 가정 방문: 25일 전 9시, 8-1,2(미방문 가정만)
- 6. 반미사: 23일 후 3시 7-2 저녁 8시 9-7 24일 저녁 8시 9-8, 9 26일 저녁 8시 10-1,2
- 7. 성소후원의 날: 오늘 공식미사 후, 미사 전후 회비 납부
- 8. 병자 봉성체: 26일 전 9시(사무실에 미리 신청)
- 9. 회의: 임마누엘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청년회-오늘 저녁 미사 후, 자모회-24일 어머니미사 후
- 10. 혼인강좌: 28일 오전 9시30분 센타, 회비-각 1만원
- 11. 축! 혼인: 27일 후 2시, 처도 프라자 이벤트 홀(10층)  
신랑-김준영(아스클레 베아네스) 신부-강혜경  
김대현 씨 2남, 강정남 씨 1녀, 주례-빈석규(마리아)신부님
- 지난주 봉헌금: 1,312,090원 □ 교무금: 948,850원